

## 第2節 우리나라 情報産業 動向

### 1. 輸出의 不振에 따른 컴퓨터産業 成長 鈍化

1983년 컴퓨터의 工業生産이 처음 시작된후 우리나라의 컴퓨터산업은 지난 7년간 연평균 50%이상의 급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최근들어 國內外 환경변화로 그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1991년 컴퓨터 생산은 2조 5,757억원으로 전년대비 14.2% 성장하는데 그쳐 1990년 이래 저성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輸出이 減少한데 기인한다.

한편 수출은 세계적인 景氣沈滯와 더불어 세계 컴퓨터시장의 高性能化, 大容量化, 小形輕量化 趨勢로 전환되어 값에 따라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저급 모델의 수출환경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 반면 노트북 PC, 386 PC등 고급기종의 수출은 6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컴퓨터산업이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은 그동안 양적 성장에만 치우쳐 질적으로 성숙되어 있지 못하고 내수 기반 없이 수출위주의 성장 전략을 견지해 옴에 따라 세계 시장의 변화에 能動的으로 對應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다. 지난 88년 이래 지속되어온 貨金引上 및 元貨切上, 선진국의 保護主義 強化, 技術 摩擦등의 여건변화에 의해 산업의 구조적 脆弱性이 표면화된 것이다. 더구나 양적 팽창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技術集約的인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세트등 핵심 부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기업의 체산성이 낮아질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핵심 부품의 수입뿐 아니라 設計技術까지도 선진국에 의존함으로써 해서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제품의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경쟁대열에 늦게 참여하게 됨에 따라 시장확보가 어려울뿐 아니라 附加價値도 없어지게 되어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다.

産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면

첫째, 生産品目的 구조상 우리나라는 PC가 전체의 42%이며 기술수준이 높고 波及效果가 큰 汎用컴퓨터는 2%에 불과한데 비해 미국, 일본등은 30%이상이며 우리와 비슷한 처지인 臺灣은 완제품보다는 마더보드등 반제품등 부품에 치중하여 産業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분야도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축적된 基盤技術이 脆弱한 상태인 반면 선진국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技術革新을 가속화시켜 가면서 우리와 같은 개발도상국에게 尖端 技術의 이전을 기피하고 特許料 및 技術料 引上, 特許分爭 誘發등 자국의 기술 및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는 對

外特許料 支拂이 PC의 경우 매출액의 10~15%수준에 까지 急増해 대외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周邊器機 및 部品, 素材産業이 發達되지 않아 재료비가 제조원가의 70%를 넘어서고 있어 原價切減, 生産性 向上, 品質 提高등 국제경쟁력 강화의 여지가 없는 상태이다.

넷째, 컴퓨터 이용측면에서 선진국들에 비해 情報化社會가 未成熟되고 정보처리산업의 발달이 미진하여 국내 절대 수요가 부족한 실정이다.

다섯째, 政策 支援 및 政策 綜合, 調整 機能의 부족을 들 수 있는데, 부처간 영역다툼으로 단편적인 지원 정책만 있을뿐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미비되어 있으며 정책 지원 부처간 기능의 중복과 업무의 혼선만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고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보산업 발전 長期計劃을 수립하고 기술개발 및 성장 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데 기술 자립을 위해서는 次世代 製品에 대한 정보 및 개발환경의 조기 입수등 급변하는 기술발전 추세에의 적응이 필요하며 또한 핵심 기술 및 부품등을 國策 研究課題로 선정하여 공동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마더보드, 애드온카드, SMPS등의 標準化, 規格化의 추진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생산 전략에 있어서는 표준화된 마더보드, 애드온카드, SMPS등을 공동 개발하여 업체별로 特化하는 것이 필요하며 핵심 부품 및 中間材의 中長期的 國산화 개발계획의 수립과 國산화 이전까지는 부품과 중간재를 공동 구매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도 원가절감에 지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로열티의 지불을 줄이기 위하여 特許侵害에 대해 회피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역의 多邊化를 적극 推進하고 高附加價値제품인 386SX, 386PC, 랩톱 PC, 노트북 PC등을 적극 개발, 이들 제품을 수출 주도 상품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현지에의 직접 투자를 통한 현지 판매 기반을 구축하고 공동 B/S(Before Service), A/S(After Service)대책을 수립해 현지 진출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2. 情報産業 企劃團 出帆

政府는 컴퓨터 및 周邊器機,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半導體등 情報産業을 오는 2천년대의 國家基幹産業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아래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情報産業 育成 國家 戰略計劃」을 수립, 1993년부터 본격 추진기로 했다.

정보산업기획단은 그동안 정보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주요 과제 및 종합대책 등이 마련되어 시행해 왔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등이 산재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족하게 된 것이다.

그 문제점을 보면

첫째, 지금까지의 政策方向이 우리 실정에 부합되는 戰略計劃이 되지 못했고

둘째, 관련 부처간 업무영역 분할 및 협력체제가 定着되지 못하여 汎政府 차원의 집중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으며

셋째, 民間企業들의 情報化를 적극 유도할수 있는 民官協力體制의 未確立

넷째, 공공부문에서도 각부처 및 기관별 電算化 計劃을 樹立, 추진하고 있으나 능동적인 需要開發의욕이 부진하고 일관성있는 투자도 부족하였으며

다섯째, 供給部門에 대한 관련 부처의 기능이 규제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 등이다.

이와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향후 정보산업 기획단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어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 情報器機, 通信, 소프트웨어등 산업별 발전목표의 우선순위 재점검과 세부 지원 시책 강화
- 2) 民間企業 정보화 추진 지원체계의 확립
- 3) 國家基幹電算網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실효성 제고
- 4)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情報人力 養成, 情報技術 標準化등 정보기반 조성 사업을 정부등 공공기관이 적극 추진
- 5) 情報通信產業의 개방과 국제화에 따른 대응 전략
- 6) 情報產業 育成을 위한 정부, 민간기업 및 전문가의 협의 기능 제도화
- 7) 國家 財政支援 사업의 우선순위 재점검과 투자 확대

또 「정보산업 기획단」의 작업체계를 보면 경제기획원에 情報產業 實務 企劃團을 설치하고 분야별 작업을 위해 총괄반, 소프트웨어대책반, 정보기기대책반, 정보통신대책반 및 정보인력 대책반등 5개의 작업반을 가동키로 했다.

이번 사업계획의 작업방향을 보면

첫째, 汎政府的 戰略計劃이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이고 집중적인 추진과제 발굴

둘째, 각부처간 협조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및 法令체계의 개선과 전략사업 선정에 대한 합의 도출

셋째, 民間企業 상호간 및 民官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조성 투자에 역점을 기울임

넷째, 소프트웨어산업의 제조업차원의 세제, 금융상 지원체제 마련

다섯째, 선진국 기업과의 국제 협력 사업계획의 발굴, 지원 등이다.

이에대한 작업일정은 1단계는 4개 분과별 試案 作成, 2단계 분과별 계획 시안을 토대로 民間協議會 및 총괄조정반에서의 조정, 3단계 企劃團에서 分科計劃을 종합 조정하여 시안의 算定 審議 및 靑瓦臺 보고, 4단계 산업정책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토의를 최종 심의하고 보고서 작성하는 순서

로 진행된다.

이와같은 정보산업 육성안이 구체적으로 수립, 시행됨으로써 정부의 전략적 支援體制의 확립 및 民官협력체제의 구축등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고 2000년대를 향한 선도산업으로써 재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3. 韓 · 臺灣 情報産業 協力體制 構築

우리나라와 臺灣의 컴퓨터업계는 韓國電子工業振興會와 臺灣 情報産業聯合會를 통하여 韓 · 臺灣 정보산업간에 생산 및 수출 질서 조정, 부품 및 부분품의 상호 구매 촉진과 정보교환등 협력체제 구축, 정보산업분야의 지적재산권 문제해결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등을 위한 공동협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와 대만의 情報事業界는 1991년 5월 臺灣 타이베이에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韓 · 臺灣 정보산업 협력위원회를 발족,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우선 PC, 모니터, 지적재산권등 3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내년까지 소프트웨어 분과위원회를 새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 협력회의에서 합의된 분과별 협력방안을 보면,

**\*PC부문의 경우**

첫째, 양국간 경쟁력 있는 부품과 부분품의 구매를 추진하며

둘째, 부품공급자 및 구매자의 信賴度와 販賣, 生産, 市場, 商品, 統計 등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

셋째, 부품의 標準化 및 새로운 부품의 공동개발 방법 모색

넷째, 韓 · 臺灣 PC산업 협력위원회 구성 등이며

**\*모니터 부문의 경우**

첫째, 양국 모니터 업계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둘째, 모델 · 지역별 생산, 수출 금액 및 물량의 분기별 상호정보 교환

셋째, 핵심부품 공급자의 명단을 교환하여 경제적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밖에 지적재산권 부문에서는 양국 업계가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교환 채널을 가동키로 했다.

또한 양국의 정보산업계는 對日貿易 逆潮改善을 위한 핵심부품의 상호구매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 했는데, LCD등 자본 · 기술집약형 부품이 생산될 경우 이를 적극 구매토록 하였다.

앞으로 韓 · 臺灣 정보산업 협력위원회는 定例會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양국간에 유기적인 협력체

제를 구축하고 상호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수 있다는데서 큰 의의를 가질수 있을 것이다.

#### 4. 先進國들의 尖端技術 開發保護 및 特許紛爭의 深化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의 혁신이 가속화되고 기술이 國際競爭力을 決定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競爭 優位의 源泉으로써 기술의 중요성이 커가고 있다.

이에 미국등 선진국들은 知的財産權 保護를 어느 때보다도 강화시키는 한편 이를 무기로 하여 自國의 經濟 惡化 내지는 貿易收支 赤字를 개선하려는 경향이 강하며 특히 첨단산업의 원천 기술등에 대해서는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특허권 침해시 막대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이 원천 기술이 부족하고 제품의 改良 技術등 대응특허권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은 기술 혁신으로 산업구조를 조정하고 첨단 기술제품의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선진 기술의 도입 및 활용이 불가피한 형편이다.

그러나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특허권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특허 전담부서 및 인력이 부족하여 국내 특허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며 앞으로 이러한 분쟁이 계속될 전망이어서 이에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컴퓨터분야의 특허분쟁은 과거에도 여러차례 있어 왔으나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것은 최근의 일로 1988년 IBM이 국내 PC 互換機 생산업체들에게 특허 침해를 이유로 특허료 지불을 요구하면서 부터 이후 대소의 특허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PC DOS 기술도입 계약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불공정 판정을 내리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TI사와 국내 PC업체와의 소송도 일단 화해를 하고 DELL, ZENITH등 다른 기업의 판결결과에 따라서 다시 협상기로 함으로써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는 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최근들어 미국의 개인 발명가인 LEMELSON이 컴퓨터, 반도체, 자동차등 대형 제조설비를 갖춘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클레임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어 업계에서는 이에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이것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때 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컴퓨터 업계가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는 매출액의 10~15%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경영수지의 악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제 컴퓨터산업의 존립마저도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업계는 독자적으로 기본기술을 개발, 습득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R&D투자를 계속해야 할 것이고 해외의 우수 특허권의 취득 확대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며 기본 기술의 상품

화에 필요한 응용기술의 개발 및 다량의 응용특허 登錄을 통한 크로스라이센스를 추구해 나가는 한편 전문 辨理士 및 특허 전담 인력 확보등 대응체제의 구축내지는 강화해 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 5. 政府 購買에있어 業界間 公正競爭 雰圍氣造成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은 최근의 세계 경기 침체 및 해외시장에서의 극심한 경쟁으로 산업의 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위주로 성장해 온 나라들이 이를 타개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와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산업체질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선진제국의 경우 정보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政府 및 公共機關이 적극적으로 수요창출을 유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내 수요의 큰 비중을 점하고 있는 政府·政府投資機關이 불합리한 구매제도하에서 운용마저 경직되게 하여 업계의 과당 경쟁의 유발은 물론 시장 질서와 가격 체계를 왜곡시켜 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1990년 한국통신이 落錢 收入으로 교육용 컴퓨터를 구매, 보급하는 과정에서 크게 대두되기 시작하여 다음에 있는 문교부의 중·고교 교육용PC 입찰에도 영향을 미쳐 덤핑입찰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내 PC가격체제의 혼란과 소비자의 불신감만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PC를 단체 수의계약 품목으로 지정하여 어느정도 제도의 보완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앞으로 이러한 사태의 再現을 막기위해서는 업체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있어야만 하였기에 그동안 協會 등을 통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방안이 다방면으로 모색되어 왔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나타난 것은 최근 있었던 한국통신의 1992년도 교육용 PC 구매입찰로 그동안 보여왔던 덤핑 과장 경쟁의 전철에서 벗어나 참여업체간 자율에 의해 적정과 공평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그동안 실시해오던 단체 수의계약 가격에 접근할수 있었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있을 공공기관의 PC입찰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데서 그 의의를 찾을수 있다 하겠다.

앞으로도 이번 교육용 PC 입찰에서 보여준 합력을 바탕으로 무너진 시장질서를 잡는데 업계 스스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며 政府에서도 정부 구매제도의 개선 및 적정가격의 산출 방안 연구 등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 6. 國產 中型컴퓨터 開發

尖端産業의 기술자립을 위해 政府와 民間業界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국산 중형 컴퓨터가 개발에 성공하여 상품화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改良 모델을 개발중에 있다.

국산 중형컴퓨터 개발계획은 우리 실정에 맞는 컴퓨터를 우리 손으로 만든다는 목표아래 지난 1987년 6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I 호기는 1991년 7월 현재 125억원, II 호기는 210억원의 연구개발비가 투자되었는데 I 호기는 미국 툴러런트사의 기종을 OEM으로 생산하면서 기술을 도입, 국산 모델로 개발하였고 1991년 7월 현재 개량모델을 개발, 행정전산망용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타이콤으로 명명되는 II 호기는 I 호기와 같은 시기에 개발에 착수하여 1990년 7월 H/W시제품이 제작되었고 1991년 7월에 시스템 통합 시제품이 개발되기에 이르렀다.

타이콤은 80MIPS의 처리 속도와 512MB의 주기억용량을 가진 중형컴퓨터로 PC등 컴퓨터분야의 주요 기술을 수입에만 의존, 源泉技術의 확보가 숙원이던 우리나라로서는 기술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는데서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타이콤은 行政電算網의 수요를 안고 등장한 I 호기와는 달리 초기에는 시장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나 상업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기도 했다.

이는 물론 시스템 보급과 상품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응용 S/W의 취약이 이유이기도 하나 이에 더하여 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감으로 외국 기종을 더 선호하는 우리 기업등 수요처의 자세도 큰 이유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政府部處가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국산기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나서고 있으며 성능 및 안정성, 신속도가 높아져 국산 主電算機를 사용한 성공사례가 계속 발표됨에 따라 보급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기존의 332,532등의機種은 온라인과 非常安全機能에 우월성을 갖추고 있고 타이콤은 일괄 처리 및 대량 데이터처리에 강점을 갖추고 있어 이들 兩機種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 라인업 구축이 가능해 시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장될 우려가 높았던 국산 주전산기가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 및 업계의 자구 노력에 의해 국내 중대형 컴퓨터 시장에서 외국 기종과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데서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할 수 있으며 이에 미치지 않고 현재 추진중인 주전산기 III호기의 성공적인 개발을 통해 실질적인 컴퓨터산업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산 중형컴퓨터의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산시스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附與 制度, 政府·業界의 공동컨소시엄을 통한 각종 응용S/W의 개발, 政府 및 相關기관에서 시스템도입시 국산 기종을 우선 고려하는 정책적인 배려, 공동 리스회사 설립 등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자세 견지등 수요창출, S/W개발, 유지보수, 교육문제 해결을 통한 보급 확대 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며 政府·業

界·使用者가 관심을 가지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7. 國家基幹電算網 事業을 통한 需要 振作

國家基幹電算網事業은 공공기관의 전산화를 촉진하여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높은 기업생산성을 유지하며 작고 효율적인 政府 具現을 통해 국가 전체의 공평과 효율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소요경비를 국내 情報産業 육성에 활용함으로써 최근의 기술발전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산업의 國際競爭力을 확보, 유지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國家基幹電算網事業은 政府, 金融機關, 教育·研究機關등 공공부문의 전산화를 촉진하여 국민에게는 편리한 생활을 제공하고 각기관은 높은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동시에 컴퓨터등 전산망의 기본시스템을 국산화하고 운영기술을 확보하여 국가경쟁력을 유지,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편 電算網別 사업 추진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전산망 사업의 경우 주민등록관리, 부동산관리, 자동차관리, 고용관리, 통관관리, 경제통계관리등 6개분야를 우선 추진업무로 선정하였다.

여기에는 약 1,500억원의 국비와 400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되며 15개 시도의 업무별 主管機關에 160여대의 주전산기 설치, 일선기관에 설치된 다기능사무기기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해당 민원업무등을 전산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

현재 주민등록관리 업무는 일부 지역에서 시험, 운영중에 있으며 나머지 5개 업무는 1990년 상반기부터 대민업무 전산처리를 실시하고 있다

金融電算網사업은 현재 개별은행간의 컴퓨터를 상호 연결하여 현금자동인출기 공동이용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전화조회자동응답시스템(ARS)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他行換스텨를 구축, 시행하고 있다.

教育·研究電算網사업은 학교 컴퓨터교육 지원사업이 우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학교컴퓨터 교육 지원사업은 1996년까지 11,800개 초·중·고등학교에 총29만대의 컴퓨터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1990년말 현재 5만대의 교육용컴퓨터를 보급하였다. 한편, 研究電算網사업은 대덕연구단지 내 15개 연구기관을 서로 연결하여 示範研究電算網을 구축, 운영중에 있으며 서울, 대덕, 부산, 대구, 광주에 5개 지역전산 지원센터 구축 및 연구정보 DB를 구축중에 있다.

향후 國家基幹電算網사업은 1단계 주요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사업추진 기반이 구축됨에 따라 분야별로 사업계획을 확충하여 2단계 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으로 행정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지방行政電算網 확충, FIRM-BANKING, HOME-BANKING등 대고객 전산망 구축 등을 推進해 나갈

계획이다.

## 8. 産業情報化 促進

세계는 지금 컴퓨터, 반도체, 통신등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제품의 life cycle이 크게 단축되고 소비자의 욕구가 다양화되어 감에따라 제품 및 소비자의 패턴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제품의 정보등의 확보가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環境變化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산업의 정보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무역규모는 對外指向的 성장전략의 추진으로 급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관계 서류 작성·처리등 무역업무가 급증함으로써 기존의 貿易管理體制로서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더욱이 최근 元貨切上 및 高貨金化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어 국제경쟁력의 유지 문제가 부각되면서 무역업무의 자동화를 통한 처리시간 단축과 부대비용 절감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편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한 선진제국에서는 무역업무 자동화가 이미 보편화되었으며 UN에서는 국제 무역절차 간소화작업의 일환으로 무역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상공부에서는 貿易自動化 基本計劃을 수립하고 무역자동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의 목표는 電子 資料交換技術과 貿易標準化 활동에 의해 종합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1990년대 중반 까지 서류없는 무역절차(Paperless Trade)를 실현하는데 있다.

종합무역자동화의 추진전략은 가급적 참여의 폭을 넓혀 모든 무역업체 및 관련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자동화시스템의 구축, 운영 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서비스 사용료형태로 재정 자립을 이루도록 한다. 또한 금융전산망, 통관전산망등 국가기간전산망과의 연계를 추진하여 무역자동화의 효과를 극대화하며 1996년이후에는 국제네트워크와의 연결등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무역자동화의 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역업무처리 시간의 단축 및 비용절감등의 간소화로 수출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자동화시스템의 구축·확산 과정에서 국내 기술을 우선 활용하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 이전토록 함으로써 국내 정보산업의 기술발전은 물론 신규 수요창출에 이바지 하게 될 것이다.

한편 産業研究院에서는 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를 産業技術情報院으로 독립기구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이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내의 산업기술정보를 모집·분석·보급하고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데이터뱅크 운영, 산업기술정보 유통에 관한 국내외 협력사업 등을 집중 추진하며 「産業技術 情報流通 10個年 計劃」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역별, 국가적, 국제간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